

스케이트가 문화재? 형평성 잃은 문화재청

2017 주요업무계획 보니...
2~300년된 유산 외면한 채
이미지메이킹만 골몰 '논란'
궁궐·능 위주 정책도 도마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이 도마에 올랐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수상한 김연아 선수가 착용했던 스케이트를 문화재로 보호하겠다고 발표해 문화재 개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궁능 위주의 정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발표한 중점정책과제 가운데 하나가 지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보호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대표과제로 건설 제작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제도'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근대문화

재 담당자는 "50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문화재 대상이 아니지만 멸실 훼손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추진한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근현대문화유산 보호와 지원책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이번 계획은 출발부터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재청이 제시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예는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 같은 '문화재'이다. 김연아 선수가 신었던 스케이트는 2010년 국외 스케이트 제작 회사에서 만들었다. 이 스케이트가 주목받는 것은 스케이트 부츠나 날의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랜드슬램을 이룬 김연아 선수의 위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스케이트가 세계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게다가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가 문화재라면 '문주익의 영웅'이라 불렸던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화를 비롯해 '스포츠영웅'이라 불리는 선수들이 사용했던 각종 용품들도 문화재로 등록돼야 한

다는 웃지 못할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제작된 문화유산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문화재 상당수는 국보나 보물 지정, 근대문화재 등록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교 성보도 예외는 아니다. 조계종이 진행한 사찰문화재 일제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 조성된 불교문화재는 10만여 점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200~300년 전에 만들어졌어도 문화재지정이 안 돼 제대로 보존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50년도 안된, 문화재로 지정하기도 어려운 대상을 문화재로 등록해 관리한다면 이보다 더 앞서 제작돼 오랜 세월 전해져 온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문화재청이 전통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이미지 메이킹'에 주력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구제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스포츠 영웅과 형평성 논란도 있어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다"며 "18

세기부터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문화유산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라는 큰 틀에서 염두에 뒀아 할 부분으로 청(廳)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궁능 문화유산 복원정비와 궁궐활용 프로그램 등 궁능 위주의 정책에 대해 사업이 편중돼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불교문화재 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국가지정문화재 소유 및 예산분석'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직접 소관하는 궁 능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일반회계는 물론 문화재보호기금 상당액을 궁능, 유적관리소에 배정했고, 반면 민간문화재는 차지하는 비중이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지원해 기우가 아님을 반증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정현스님은 "일반적인 행정업무로 물의를 빚고 있는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계승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반증하는 예"라며 재고를 주장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a.com

“동국대 발전기금 쾌척
이사들에게 귀감 될 것”

자광스님, 2천만원 지정 기탁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광스님(사진)이 학교발전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자광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무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2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사장 스님 취임 이후 학교가 안정돼 가고 있다”며 “최근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이 학교발전 기금을 낸데 이어 이사장 스님의 이번 보시행은 법인 여러 이사 스님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사장 자광스님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 발전기금 모연에 더 힘쓰겠다”며 “공심으로 바르게 살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a.com

탄자니아 아름다운동행

법인처장 성유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탄자니아 '아름다운동행 법인' 법인처장으로 성유스님(사진)을 임명했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은 탄자니아에 '아름다운동행 법인'을 설립, 학교 건립 및 운영 등을 사업을 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당연직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성유스님은 법인 처장으로 향후 1년 동안 탄자니아에 파견, 보리차림농업기술대 운영을 맡는다.

총무원장 스님은 “큰 원력을 세워 먼 곳으로 가는 만큼 소임에 성실히 임해달라”며 “아프리카에서 스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포교가 될 수 있으니 수행자답게 항상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성유스님은 2002년 직지사에서 녹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06년 직지사에서 성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 청소년국장을 역임했다.

이경민 기자

포교국장 원목스님 임명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지난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포교국장에 원목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원목스님은 2001년 직지사에서 녹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실상사화엄학림 학감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 선덕사 주지를 맡고 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a.com

“잘못된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해야”

강창일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10·27법난기념재단을 설립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불자위원 모임인 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10·27법난 기념사업은 국가에 의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며 “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10·27 법난에 대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기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인가를 받아 10·27법난기념재단을 설립할 것, 기념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 재단이 기념관 운영과 기념 및 추모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창일 의원은 “한국불교 최대 아픔이자 전두환 신군부의 대표적 '국가폭력' 사례인 10·27법난은 국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의 근거가 없어 결국에는 종교계가 그 책임과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스님, 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17일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기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각각 총본산성역화, 승려복지, 동국대 발전 등에 쓰인다.

흥국사, 자비나눔기금 7000만원 쾌척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스님)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기금 7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조계종 총본산 성

역화 불사기금 5000만원, 승려복지기금 1000만원, 동국대 발전기금 1000만원 등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사에 힘을 보태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사찰과 신도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총본산성역화 불사 원만회향
승려복지·동국대발전 '기원'

말했다.

대오스님은 “총무원장 스님 배려로 항상 잘 지내고 있다”며 “진작 동참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인사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a.com

총무원, 2017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정현스님)는 불교문화진흥을 위해 종단 사찰과 불교문화단체를 대상으로 '2017 불교문화행사(산사문화예술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일반법회와 사중 기본행사를

제외한 사찰에서 진행되는 문화행사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교문화행사 △지역문화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사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외국인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말까지다. 관련 모든 행사는 자부담 50% 이상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한 사업

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사업에 공모하려면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총무원 문화부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메일과 팩스로는 접수할 수 없다.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초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a.com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글

歸依 三寶하옵고

大田 龍華寺 會主 廣山堂 映珍스님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2561(2017)年 1月 11日(陰 12月 14日) 午前 10시 法臘 54年, 歲壽 71歲로 圓寂에 드셨습니다. 遠行에도 永訣式에 참석해 주신 四部大衆께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佛紀2561(2017)年 1月 13日

문도대표 일연 정호

상 좌 승준 지운

손 상 좌 소음 인목 인덕 인옥 인벽

인공 인법 인광 인승



템플스테이 사무국장 (교역직종무원) 채용공고

서울 강남의 중심에 위치한 천년고찰 봉은사는 외국인만 한해 10만명 이상 방문하며 템플스테이 및 템플라이프 프로그램에 한해 평균 내외국인 7000명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 대표 사찰로서 2014년 세계 여행객들이 '꼭 가봐야 할 대한민국 명소' 3위로 선정된 곳입니다.

봉은사에서는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원력을 가진
사무국장스님을 모집합니다.

— 채용조건 —

●채용분야

: 템플스테이 사무국장(교역직종무원) 1명

●지원자격

가. 비구스님
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에 원력이 있는 분
다. 영어 및 제2외국어 가능한 분 우대

●모집일정

가. 접수마감: 2017년 1월 25일까지
나. 면접일정: 2017년 1월 31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개별 연락)

●접수서류

: 수행이력서(사진 첨부)

●서류제출

: 이메일(nochi99@hanmail.net) 또는 우편접수 가능
(1월 25일자까지 소인 유효)

●문의사항

: T.02-3218-4817(인사담당 노치운 사무관)

※ 이력서 작성 시 지원분야를 명기하여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상기 일정은 봉은사의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